

‘교복가격 담합’ 근절, 전국 교육청 힘 모은다

광주·전남 교복담합 공정위 조사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방식 악용 17일 제주교육청서 선정방식 논의 17개 시·도교육청 교복담당자 참석

광주·전남지역 교복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이어 전국에서도 ‘교복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17개 시·도교육청이 교복 납품업체 선정 방식 변경 등을 놓고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7일 전국 시·도교육청 교복 담당자들이 제주교육청에서 모여 1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던 ‘학교 공동구매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논의한다.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교복 납품업체 선정 방식으로, 각 학교가 교복 기초금액(31만원~35만원 상한가)을 고시하면 업체들이 투찰가격을 제시한 뒤 교복 선정위원회가 최저가 업체 한곳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복 납품업체 선정은 ‘교복 가격이 비싸다’는 학부모 항의가 잇따르자, 지난 2014년 개인 구매에서 학교 공동구매로 변경돼 이어져왔다.

문제는 상당수 업체들이 이런 방식을 악용해 담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

민모임’은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30곳을 대상으로 교복 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복 판매업체들이 사전에 교복 금액을 합의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가 발견됐다”며 “공정위의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지난 7일 학교 입찰 과정을 살펴보는 등 조사에 착수했고, 뒤이어 지역교육청도 자체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나라장터에 게시된 광주·전남지역 중·고교 교복 개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광주 82개교 중 43개교의 경쟁투찰가 차이는 300원~1만원 이하, 39개교는 1만 1000원~8만6000원이었다.

전남은 78개 학교 중 71개교가 ‘200원

~1만원 이하’, 나머지 7개교는 ‘1만2000원~4만9000원’ 사이의 금액 차이를 보였다.

담합이 의심되는 학교의 교복가격은 30만원~40만원·공정경쟁 추정 학교는 10만원~20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 교복 담당자들은 납품업체들이 ‘투찰가 1000원~2000원 차이 담합’ 등을 통해 최저가 교복업체 선정 방식을 악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 교복업체 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12개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경고 처분했고 2021년에도 전주지역 4개의 교

복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서울·경기·전주지역에서 적발된 업체들이 이용한 방식은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의 담합 의혹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교육청 교복 담당자는 “현재의 교복 납품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17일 열리는 논의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정장 형식의 교복보다는 생활복(체육복)을 선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택시업계, 기본료 ‘4600원’ 요구 이유는

광주 택시요금 현실화 촉구 회견

서울·인천 올해부터 4800원으로 “2017년 이후 동결...기사 다 떠나”

광주시가 최근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까지 올릴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광주 지역 택시업계가 ‘4600원’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는 2017년부터 요금이 동결돼 현재 ‘집단 고사’ 상태라며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4000원 인상도 부담스럽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지역플랫폼택시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4600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택시 운송원가는 현 기본요금(3300원)이 산정된 2017년 대비 올해 39% 인상됐다. 돈벌이가 안 되니 택시 기사들이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인건비, 유류비 등을 포함한 택시 운송원가는 2017년 대비 △2021년 22.61% △2022년 30.77% △2023년 39.47% 올랐다.

따라서 기본요금 인상 시 올해 운송원

가 인상률을 적용해 3300원에 139.47%를 곱한 값인 460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확정돼 2026년까지 지속될 경우 택시 운행 1회당 1000원, 1일 3만원, 매월 75만원의 손해가 발생해 심각한 택시 경영 대란이 예상된다”며 “타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달라”고 성토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인천은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렸다. 대구·울산의 경우 지난 1월 택시요금을 4000원으로 인상했지만 소정근로시간은 평균 3.5시간으로 광주(평균 6.67시간)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다. 해당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추가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용객인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경기 불황은 계속되고 난방비,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4600원은 과하다는 것이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이모(47)씨는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이들도 한 가정의 가



13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지역플랫폼택시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4600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장일 텐데 물가 상승에 따라 어느 정도 요금을 인상해줄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1000원 가까이 올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솔직히 광주시가 제안

한 4000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박에서(23)씨도 “서울·인천과 광주는 다르다. 지역의 경제 상황에 맞는 택시요금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기본요금 4000원”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할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오는 3월까지 결정 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광주비기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